선진미술관서 배운다

⑫ 샌디에고 현대미술관

지역민 문화지수 높이는 '문화도서관'

피카소서 팝아트까지…현대미술의 보고

매달 젊은 작가 초청 '시민 만남의 시간'

영화상영·강좌·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미국 미술관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소도시 미술관은 물론 대도시의 초대형 미술관도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센터로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샌디에고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 Diego) 역시 지역 밀착형 운영으로 샌디에고 시민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한몫하고 있다.

미국 서부해안의 맨 남쪽에 위치한 샌디에고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쾌적한 기후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고향'으로 불리는 휴양도시다. 세계적 관광도시인 멕시코의 티후아나와 인접해 있는 데다 미국의 제2도시인 LA와 한시간 반정도 거리에 위치해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샌디에고의 주요 문화 인프라인 샌디에고 미술관은 라호야와 다운타운 두곳에 위치해 있다.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라호야 미술관이 본관이라면, 다운타운 미술관은 분관으로 연간 관람객은 약 20여만명 정도다.

스페인어로 '보석'을 뜻하는 라호야(la jolla)에 위치한 현대 미술관은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건물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미술관 유리창을 통해 시야에 들어오는 짙푸른 바다는 역동적인 전시작품들과 함께 아우러져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 미술관은 유명 건축가인 어빙 길(Irving Gill)이 설계(1916년)한 자선사업가 엘렌 브라우닝 스크립스(Ellen Browning Scripps) 의 저택을 리모델링해 지난 1941년 문을 열었다. 1970년대 초반 '라호야 현대미술관'으로 불리다 지난 1990년 지금의 '샌디에고 현대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입지적인 조건과 대담한 기획전, 화려한 콜렉션을 바탕으로 샌디에고 미술관은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메카로 발돋움했다.

90년대 초반 작품기증이 늘어나면서 콜렉션 수용에 한계를 느낀 미술관 측은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분관을 설치했다. 이 다운타운 미술관은 개관한지 1년도 안돼 인근 학교와 지역단체, 시민들을 끌어 들이는 문화공간이자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이 미술관은 지난 19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화, 조각, 사진, 비디오, 영화, 설치 작품 등 현대미술 작품 4천여점을 소장한, 말 그대로 현대미술의 보고다. 콜렉션은 피카소에서 부터 로이 리히텐슈타인, 필립 거스통, 바네사 비크로프, 조너던 보로프스키 , 앤디 골드워시, 짐 캠벨, 알렉시스 스미스 등 팝아트 계열에서부터 개념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다.

미술관은 현대미술의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굵직한 기획전들을 통해 샌디에고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특히 전시회 이외에 영화상영, 문화 강좌, 퍼포먼스,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도 열려 매년 수천여명의 시민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모은다.

특히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점을 감안해 예약하지 않아도 손쉽게 미술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TNT (Thursday Night Thing)'이다.

매달 첫번째 목요일 저녁 7시 다운타운 미술관에서 막을 올리는 'TNT'는 슬라이드 상영, 시 낭송회, 라이브 밴드의 공연, 작가와의 대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 행사에는 샌디에고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하며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작업과정 등을 영상으로 보여줘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어 예술과 공간이 상충할 때 예술가들이 전시공간을 예술로 형상화 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이는 '예술과 공간이 만날때(Art and Space Collide)'가 펼쳐진다.

샌디에고 미술관의 관계자는 "지난 1950년 이후 현재까지의 차별화된 콜렉션을 매개로 지역민들의 문화감각을 배양시키는 '문화도서관(cutural library)'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을 미술관 프로그램에 적극 끌어들여 예술가와 일반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샌디에고 미술관은 최근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3천만달러를 들여 다운타운 미술관을 확장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미국편 끝〉

/샌디에고=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전경. 미술관 정문 앞에 설치된 조각가 조너던 보로프스키의 '망치질 하는 사람(Hammering Man·1988년 작)'은 미술관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개인 저택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샌디에고 라호야의 현대미술관은 태평양을 품에 안은 입지조건과 낸시 루빈스의 작품 '건물 위 뒤집어 놓은 보트들'이 어우러져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루빈스 작 'boat sculpture' 美 미술관중 '가장 화려한 뒷뜰' 장식

보로프스키 작 '망치질…' 노동으로 영위하는 현대인의 운명 그려

■샌디에고 현대미술관의 걸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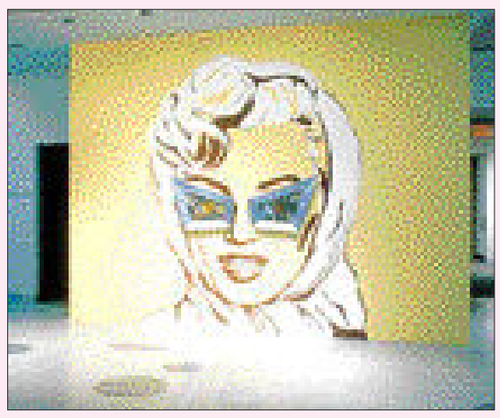
샌디에고 현대미술관은 유명작가들의 대표작들을 야외 전시장에 설치해 미술관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라호야 미술관의 지붕에 설치된 낸시 루빈스(56·Nancy Rubins)의 작품 ' boat sculpture'가 좋은 예다. 천장에 배를 거꾸로 설치한 이 작품은 중력의 법칙을 뒤엎는, 건축에 대한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으로 지난해 설치됐다. 이 작품을 계기로 샌디에고 미술관은 수천개의 미국 미술관 중에서 가장 화려한 뒷뜰(backyard)을 가진 미술관이란 찬사를 얻었다.

네팔 출신의 낸시 루빈스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1970년대 말부터 매트리스나 트레일러, 비행기 부품, 타이어 등 주로 산업폐기품이나 생활 소모품 등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정확한 무게중심으로 밸런스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낯선 오브제를 활용해 만들어 내는 그녀의 작품들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운타운의 미술관 정문에서는 조각가 조너던 보로프스키(65·Jonathan Borofsky)의 '망치질 하는 사람(Hammering Man·1988년 작)을 만날 수 있다. 높이 5.4m의 철판으로 제작된 '망치질 하는 사람'은 노동을 통해 삶을 일궈 나가야 하는 현대인의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환경미술에 관심이 많은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곳곳에 공공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이외에 라호야 미술관 1층에 전시된 비주얼 아티스트 알렉시스 스미스의(Alexis Smith·58)의 '남자들은 안경 쓴 여자에게 끌리지 않는다(Men Seldom Make Passes at Girls Who Wear Glasses· 1985)'도 샌디에고가 자랑하는 명작이다. 앤디 워홀의 마를린 먼로를 연상케 하는 이 작품은 사진·철사·잡지 표지 등을 맞추어 선과 색을 배합한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됐다.



알렉시스 스미스 작 '남자들은 …'(1985년)

/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